

 국토교통부		보도 설명 자료		
		배포일시	2021. 10. 18.(월) / 총 2매	
담당 부서	도로투자지원과	담 당 자	과장 오원만, 사무관 김병철 • ☎ (044) 201-3897, 3906	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		

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정부보조금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 (뉴스1, 파이낸셜, 해럴드경제 등 '21.10.18, 월) >

- ◆ 민자고속도로는 혈세먹는 하마? 5년간 국고보조 1조 6,000억 받았다
- 최근 5년간 전국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정부 보조금 1조 6,000억 원 지급
 - 민간기업의 이익보전을 위해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가 유출
 - 정부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운영사의 절반 이상은 영업이익 감소
 - 민자사업 수익성 추산과 정부지원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

□ 보도된 정부보조금 약 1조 6,000억원*은 기존 실시협약에 따라 '16년부터 '20년까지 5년간 지급된 보조금으로 정부는 '18년 이후 사업재구조화** 등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(MRG)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
* 정부보조금은 최소운영수입보장(MRG), 통행료미인상, 명절면제 등으로 구성

** 총 8개 노선 중 천안논산, 대구부산 등 7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로 '21년부터는 MRG가 미발생하며, 인천대교는 코로나19에 따른 교통량 급감으로 MRG가 발생

○ 각 노선별로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정부가 지급할 보조금 규모는 크게 축소될 예정이며, 특히 MRG 지급은 '22년 이후에는 인천대교만 대상으로 교통량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
- 운영사의 '19년 대비 '20년에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교통량이 급감하여 영업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으나, 영업비용인 관리운영비는 코로나19 전·후가 비슷하여 발생한 일시적 현상입니다.

* 영업이익 = 영업수익(통행료수입+휴게소수입+재정지원금) - 영업비용(관리운영비)

- 정부는 그 간 최소비용보전방식의 사업재구조화(MCC), 손익공유형(BTO-a) 또는 위험분담형(BTO-rs) 민자사업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.

- 실제 초기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8~9% 수준이었으나 수익률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결과, 최근 개통한 노선은 3~5%로 추진되었고, 협상 중인 2개 노선은 2%대의 수익률이 예상됩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자적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김병철 사무관(☎ 044-201-390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